

사회감정과 말의 증상들

— 오정희의 「별사」, 「야회」, 「밤비」를 중심으로

서 인 숙*

요약

이 논문은 사회감정이 오정희 소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 되는지 분석한다. 1980년 한국 사회의 제도 변화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신군부의 공포가 원인이며, 언론을 통해 공포의 역전과 전이가 시도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회'와 안정 담론은 구성되며, 이는 역설적으로 사회 감정으로서 불안과 공포 등을 배태시킨다. 1981년은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치성이 한층 첨여해지는 시기였다. 이 시기 발표한 오정희의 「별사」, 「야회」, 「밤비」는 사회감정으로서 말의 증상들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첫째 「별사」에서 정옥의 남편은 실종 상태인데, 그 실종은 사회적 죽음을 상징한다. 정옥의 불안은 사회적 죽음의 목격에서 기인하며, 연대 가능한 공동체가 부재한다는 점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실패로 증폭된다. 정옥은 증언 불가능의 현실 상황으로 인해 그의 의식 속에서 남편의 행적을 소환하게 되는데, 이는 유편 떠다시피 한 자를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서사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 자를 위한 제의이며 애도이다. 둘째 「야회」는 당시 상위중산계급이 안정 담론을 재강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며 '안전사회'의 양가성에 대해 갈등하는 존재로 서술자의 위치한다. 이 소설에서 사용된 일부 말줄임표는 신문 지면의 검열 삭제 공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 말의 공백은 '안전사회'에서 불완전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을 암시한다. 셋째 「야회」와 「밤비」에서 소문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은폐된 진실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징후이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갖는 각자의 서사를 소문이라는 '이야기성'으로 해소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말의 폭력이 이웃을 향하기도 한다. 발화 불가능성을 우회하는 지점에서 사회감정

*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강사

은 말의 증상으로 표출되었다.

주제어: 사회감정, ‘안전사회’, 사회적 죽음, 말의 공백, 소문, 공백의 대리보충, 「별사」, 「야회」, 「밤비」

목차

1. 서론
2. 사회적 죽음과 애도의 방식
3. ‘안전사회’ 속에서 불완전하게 말하기
4. 소문, 은폐된 이야기의 ‘대리보충’
5. 결론

1. 서론

1980년 한국 사회 전반에 다각적인 제도 변화가 있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는 제도 마련과 시행을 주관했는데, 이 조직을 설치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광주민주화운동이다.¹⁾ 책 바바렛에 따르면 정치 엘리트는 자신의 특권적인 지위를 위협받을 때 공포를 느끼며, 이러한 감정이 조직 변동이나 제도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치 엘리트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공포 극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민중이 느끼는 공포와 다르다.²⁾ 또한 조

1) “光州騷擾事態는…(중략)…國保委를 설치하게 한 중요한契機”라고 밝힌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백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 13면. 제도 변화의 대상은 경제, 사회, 교육 뿐만 아니라 정화, 보건, 문화, 공보, 농수산, 상공, 건설, 교통, 관광 과학, 지방 행정 등이며, “국보위는 경제·사회·교육 등 국정의 각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모순과 불편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던 각종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시정, 개선했다”(26면)고 주장한다.

2) 책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옮김, 『감정의 거시사회학』, 일신사, 2007, 250면. 책 바바렛은 영국의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정치 엘리트 공포가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

직과 제도의 변화가 자신들의 ‘권력 부족’을 만회하려는 목적에 우선하므로 반드시 공동체 이익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논의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신군부의 공포가 국보위 조직 및 제도 변화를 기획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를 통해 민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권력 회복의 계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포라는 감정과 제도 변화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신군부가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가용 자원은 언론인데,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修辭) 방식과 반복 보도는 사회적 의제 구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 정치권력을 향한 각계각층의 저항과 광주 학살의 진실 대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보도가 가능하도록 국보위는 언론통폐합을 비롯한 언론 제도 변화를 시행한다. 언론에 대한 자율성 억압은 신문매체가 출현했던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바,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각 시대에 따른 특성이다. 1980년 신군부의 집권은 정치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 성원으로부터 신뢰감 얻기 어려웠다. 마벨 베레진은 “공포와 신뢰의 결여”는 불안전 국가의 특징³⁾이라고 지적하는데 다수의 공동체 성원들이 느끼는 감정이 신뢰의 결여 즉 불신이라면 1980년 한국 사회는 불안전 국가라는 정의가 가능하다. 사회 성원이 갖는 불신은 신군부에게 실권의 위기감에서 오는 공포를 갖도록 한다. 이와 같은 불신과 공포를 역전시키고 이러한 감정을 시민들에게 전이시키는 데 언론의 역할은 주요했다.

이는 1980년 당시 신문 지면에 안정·안전·위기의 키워드가 반복해 등장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력범이 증가하여 社會不安이 가중되”고

한다. 이때 정치 엘리트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집권 세력이 되었을 때 사용되는 용어다. 쿠데타로 집권세력이 된 1980년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치 엘리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용어 대신 신군부, 정치권력 등을 시기와 맥락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것이다.

3) 마벨 베레진, 「안전국가:감정의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책 바바렛 위음, 박형신 옮김, 『감정과 사회학』, 이학사, 2009, 74면.

4) “안정과 화합의 바탕위에 일대 국민적 전진을 이룩하는 연대”를 강조하거나 (「창조·개혁·

있는 상황에 “조속한 위기克服과 安定基盤 구축”⁵⁾의 사명을 스스로 부과해 현재의 위기를 강조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거와 배제 혹은 정화의 면면을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노력으로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증거한다. 이와 같은 배제 혹은 정화와 안전의 상관성은 1975년 사회안전법 시행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사상범에 대한 보안 처분을 통해 사회와 격리하고 교육과 ‘치료’를 하도록 하는 법제도인데 1980년 사회보호법으로 바뀌어 사상범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보안처분에 따른 감호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⁶⁾ 이러한 법제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며, 특히 사상범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치료’, 교정을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⁷⁾ 중요한 수단으로 여긴다. 이와 같은 법제도를 시행하고 ‘범죄자’나 ‘사상범’을 사회로부터 배제·격리함으로써 안정의 감정을 촉발시켜 ‘안전사회’⁸⁾를 구성해 간다. 물론 이와 같은 ‘안전사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는 각자의 몫으로

발전의 세출발 전 대통령 취임사전문, 경향신문, 1981. 3. 3, 3면) “평상체계로는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중략)... “중앙정보부가 국가정보기능의 증추로서 국가 안전에 관련된 국내의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제반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임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앞으로 여러분의 활동 여하는 국보위가 지향하는 목표당성 여부를 좌우하게 되며 그것은 나아가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것” (“안정 저해요인 신속 제거”, 매일경제, 1980. 7. 19, 1면)과 같은 논리로 안정이나 안전, 위기는 당시 신문 지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 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앞의 책, 9-12면 참조.
- 6) 김대현, 「치안유지를 넘어서 ‘치료’와 ‘복지’의 시대-1970-8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45호, 역사문제연구소, 2021. 4.
- 7) 같은 글, 115면. 당시 대법원 판례에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 정책상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명시한다.
- 8)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사회’라는 용어는 1980년대가 안전사회였다는 확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따옴표와 함께 표기한다. 당시 신군부가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시민들의 신뢰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신문에 등장하는 안전사회로의 지향(범죄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처벌)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과 시행들을 일컬어 ‘안전사회’라고 명명했다. 이는 법제도와 교육,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담론화 되는데, 이 ‘안전사회’ 담론은 사회 성원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재강화되거나 지향에 직면하기도 한다.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안정성 대 불안정성의 비율”⁹⁾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사회’란 ‘안전’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닌 위기를 과장·확대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위기의 생성과 확산 그 자체로 불안과 공포가 발생하며,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배제와 정화의 대상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이웃이거나 지인이고 또한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이 배태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정작 알아야 할 진실은 삭제되거나 은폐되어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은 불안과 공포를 더욱 증폭시킨다. ‘안전사회’는 역설적으로 지속적인 불안정을 생산하며 유지된다.

공포와 불안, 안정 등은 감정의 영역인데, 감정이란 대체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개인의 내면에서 촉발된 심리라고 여긴다. 그러나 공동체 성원들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사건이나 제도들을 통해 공통으로 공유하는 감정도 존재하는데, 이를 사회감정(Social Emotion)이라고 한다. 즉 사회감정은 성원들의 상호 교류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¹⁰⁾ 대체로 감정은 사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여기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감정은 조직을 발생·변동시키거나 제도를 변화시키기는 공적 영역과도 관련된다. 감정은 개인 내면에서 발생하지만 사회 성원으로서도 감정을 경험하며 이 둘은 상호 교차되거나 연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감정의 한 증상으로서 소설 읽기를 시도한다. 등장인물들의 감정은 때로 사회감정의 맥락에서 해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오정희는 등장인물들의 감정 묘사를 곳곳에 배치해 서사를 이끈다. 이는 중산층 여성의 내면과 욕망¹¹⁾ 또는 비극적 세계 인식에 대한 불안 의식¹²⁾

9) 마벨 베레진, 앞의 책, 90-91면.

10) 같은 책, 255면. “공포가 단지 위협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경험된다”고 밝힌다.

11) 이를 분석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정연희, 「오정희 소설의 표상연구 - 「비어 있는 들」과 「야회」

으로 해석되지만, 때로 현실 세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소설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¹³⁾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오정희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가. 현실세계의 구체적 재현만이 정치·사회적 의미를 생성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정치성이 침해해지는 1981년 발표된 「별사」, 「야회」, 「밤비」의 등장인물들이 현실세계와의 부침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은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점에서 사회감정이 소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세 편의 소설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1981년 당시 사회감정을 분석하는 것은 단지 지나가 버린 감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은 아니

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4호, 국제어문학회, 2008. 12, 윤애경, 「오정희 소설의 환상성과 비극적 세계 인식」, 『국제언어문학』 28호, 국제언어문학회, 2013. 10, 김미현, 「오정희 소설의 우울증적 여성 언어 - 「저녁의 계인」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9호, 우리말글학회, 2010. 8, 최영자, 「오정희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 히스테리적 발화양상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2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12.

- 12) 오생근, 「오정희론 - 허구적 삶과 비판적 인식」, 『사회비평』 4호, 남남출판사, 1990. 8.
- 13) 권영민은 “吳貞姬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뚜렷한 윤곽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소설적인 창조의 면에서 볼 때, 많은 강점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이 창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물들의 내면 생활에 대해 깊이 있는 구체적 장면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데서 연유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중략)… 폭 넓은 객관적인 인식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그것이 작가 자신의 감수성과 반응만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권영민, 「현실적 상황과 소설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 제9권 제1호, 문학과 지성사, 1978. 2, 313면. 또한 김용구는 “오정희 소설은 바로 현대세계의 병리현상을 암시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형상화하고 있”지만, “이를 단지 암시적, 비유적으로 드러낼 뿐 구체적으로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 김용구, 「일상의 감회와 밀침」, 『세계의 문학』 통권 30호, 민음사, 1983. 12, 330-331면. 반면에 경제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오정희 소설 읽기를 시도한 연구도 제출된 상태다. 산업화라는 현실 인식을 소설에 담지하고 있다는 분석(박혜경, 「오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사회 현실 인식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16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5)과 5·18에 대한 작가의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서은혜, 「80년 광주 이후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남편-아내’ 인물형 범주의 의미 - 자전적 공간과 작가 정체성 모색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1. 3)이 대표적이다.

다. 브라이언 마수미는 특정한 사건은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더라도 현재 위기감을 불러오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증식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¹⁴⁾ 이처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현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오정희의 소설을 사회감정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서술자의 위치가 가정에 국한되고, 주부이며 가정 내의 관계성에 치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감정을 ‘중년 여성의 개인 심리’로만 회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감정은 자주 정치적·사회적 자리에서 소외되고 배제된다. 물론 사적인 내면의 세계와 정치·사회적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감정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상대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사회·정치적 자리에 대한 배분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오정희는 두 번째 창작집 『유년의 뜰』을 출간하면서 후기에 “간의한 현실일수록 작가가 담당해야 할 몫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거듭 상기”¹⁵⁾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지 두 번째 창작집을 타고난 작가의 수사적 차원의 소회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첫 번째 창작집인 『불의 강』(1977)의 비판 지점 즉 시대를 외면하고 부르주아적 감상만을 주제 삼는다는 비판에 대한 의식일 수 있지만 작가가 인지한 간의한 현실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는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2. 사회적 죽음과 애도의 방식

1980년 한 해직 기자가 고등학교 동기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동창생이 그를 향해 “어이, 최아무개. 그동안 똥땅쳐서 모은 돈이 꽤

14)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적 사실의 미래적 탄생 위협의 정치적 존재론」, 멜리사 그레고·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외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96-125면 참조.

15) 오정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후기.

많을테니 오늘 2차는 자네가 사게”라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해직 기자는 “저 친구의 눈에 비친 나는 불법 해직의 희생자가 아니라 정화의 대상자였구나”¹⁶⁾라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한다. 이 ‘후일담’은 당시 해직 기자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보여준다. 물론 이 해직 기자는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했고 정치적 폭력에 저항했지만, 이러한 사실의 전달 대신 부조리, 파렴치¹⁷⁾ 등으로 수식되어 범죄자의 낙인이 찍혔다. 이와 같은 ‘범죄자’를 단죄하고 배제함으로써 사회가 정화되고 ‘안전사회’가 안착되어가고 있음을 가시화 한다. 이는 ‘안전사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배제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일례다. 언론을 통해 유포된 안정 담론을 재강화하는 역할은 대체적으로 그러하듯 사회 성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해직 기자는 신문기자라는 공적 자리에서도 동창생 모임인 사적 자리에서도 ‘범법자’로서 추방되며, 사회적으로 죽음과도 같은 상태에 이른다. 이 죽음의 원인은 해직 그 자체가 아닌 ‘범법자’로의 낙인이다.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명명한다면 오정희의 「별사」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다. 정옥은 부모님 집에 간 김에 매입해 둔 못자리를 미리 확인하러 어머니, 아들과 함께 묘원으로 향한다. 부모님의 집에서 묘원으로, 묘원에서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보타사로 가는 여로가 중심 서사다. 이 여로의 과정에서 정옥은 자신의 남편을 떠올린다. 그는 지방 대학의 강사로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금지되었고,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없는 ‘금치산자’가 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진종일 낮잠이나 바둑, 밤의 숙면을 위한 작은 노동”¹⁸⁾뿐이므로 무기력하게 지낸다. 더

16) 최형민, 「80년 언론 학살’에 대한 언론의 재조명」, 『관훈저널』 76호, 관훈클럽, 2000. 9, 298면 참조.

17) 1980년 5월 국보위 설치 이후 정화 운동으로 “1981년 1월 현재 무려 770명을 해직시켰다. 문공부가 보안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바에 의하면, 해직의 사유는 부조리가 439명, 제작거부가 235명, 무능 64명, 반정부 17명, 정치 유착 6명, 국시 부정 5명, 범법 및 파렴치 각 2명”이라고 밝힌다.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619면.

18) 오정희, 「별사」, 『문학사상』 통권 100호, 문학사상사, 1981. 2, 155-156면. 앞으로 2장에서 「

군다나 그를 감시하는 지속적인 전화로 인해 사회 성원으로 재위치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남편은 감시 전화를 피해 낚시 도구를 챙겨 “진시처럼 때”(151면)난다. 이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실종되고 유류품만이 발견된다.

그곳 주재 파출소의 순경이 유류품이라고 내주는 바구니, 낚싯대, 접는 의자 따위에는 그때까지도 물기가 축축했다. 점퍼 주머니에서 꺼낸 수첩, 신분 증명서의 잉크 글씨가 몹시 번져 보였다. 신분증명서에 붙은 증명 사진은 이미 아무 것도 증명해낼 수 없는 잊혀진 과거의 얼굴처럼 낡설고 흐렸으며 특징이 없었다. (164면)

경찰에게 인계받은 남편의 신분증은 아무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증명서가 물에 젖어 흐려진 상태는 그가 놓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남편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배제된 자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잊혀진 과거의 얼굴이란 이미 죽은 자이며 현재의 얼굴이 없는 상태 즉 그 어떤 사회적 위치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지금까지 남편의 유류품이 발견되었고 지속적으로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실재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는¹⁹⁾ 판단과 실종 이후 집에 잠시 들렀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는지 정욱이 묘원을 찾았던 백중날 남편 역시 동시적 시간 배경으로 행적이 묘사된다는 점을 근거로 그가 생존해 있다는 해석이 각각 제출되었다.²⁰⁾ 그러나 남편의 죽음은 물리적인 생사의 문제

별사]의 인용은 본문에 면수만 표기함.

19) “남편이 낚시터에서 죽던 날을 돌이켜 보면서 「정욱」은 감정의 충동을 억제하고 있다.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 사이의 거리가 살아 있는 사람들 끼리의 거리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정욱」의 감정을 읽으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해석은 남편의 실제적 죽음을 상정한다고 볼 수 있다. 권영민, 앞의 글, 98면. 또한 김용구는 “자살을 기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구, 앞의 글, 329면.

20) 정재림은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이 많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면서 “남편의 죽음이 사실인가 환상인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시도” 되었다고 언급한다. 정재림, 「「별사(別辭)」에 나

가 아닌 1980년대 초 사회로부터 배제당해 ‘신분증명서의 잉크가 번진’ 상태 즉 사회적 죽음에 대한 상징이다.

「별사」는 망자를 위해 제를 올리는 백중날 묘원에 가게 된다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죽음이 소설의 핵심이다. “두꺼워지는 어둠 속을 물처럼 풀려 고요히 흐르고”(144면)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민승한 눈썹과 오그라진 손으로 집집마다 구걸하는 문둥이들, 묘원으로 가는 길에 보게 된 군인들의 “죽은 녹빛의 행렬”(149면), 화장을 한 어머니의 얼굴이 “염(殮)을 한 것 같”(150면)다고 표현하는 등 죽음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²¹⁾ 그리고 그 이미지와 함께 불안, 공포, 섬뜩함, 두려움의 감정들이 배경처럼 펼쳐진다. 이 소설에서 실존적 죽음과 사회적 죽음이 교차되고 있듯이 감정 역시 죽음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원적 감정과 사회 감정이 교차된다. 안락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고 “가슴이 섬뜩해 지며 …(중략)… 너무도 친근하고 돌연한 느낌”(143면)이라고 진술하거나 묘원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은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임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낀다.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기 때문에 돌연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삶의 도중에 만나게 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친근하다.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에서의 두려움 역시 인간의 근원적 차원의 것이다. 그러나 정옥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사회·정치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타난 ‘죽음’의 의미 연구-문체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3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3, 206면. 또한 김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남편의 생존 사실은 분명해 진다”고 해석한다. 김진석, 「오정희의 「별사」 분석」,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19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6, 120면. 한편 오정희는 대담에서 “남편의 죽음은 ‘상상속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썼다”고 밝히며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남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해서 평론”을 했다고 언급한다. 또한 “사회적인 환경과 개인적으로 실존적인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는 측면에서 ‘남편의 생사유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정희·이태동, 『작가와 함께 대화로 읽는 소설 별사』, 지식더미, 2007, 87면.

21) 정재림, 앞의 글. 이 논문에서는 “정옥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도처에 흩어져 있는 죽음의 이미지들”(213면)이라고 분석한다.

일정한 보폭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는 죽은 녹빛의 행렬에는 뭔가 질리는 느낌이 있었다. 행군을 시작하기 전, 잘 닦아 윤을 내었을 계급장에도 먼지는 두텁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행군을 보는 사이 가슴속에 드리운 불투명한 막이 점차 두꺼워지며 가슴을 죄어오기 시작했다. 「부대가 이동하나 보죠?」 마음속의 **불안**(강조는 인용자)을 지우기 위해 정옥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다. (149면)

정옥이 행군을 보며 느끼는 불안은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려 발생하는 사회감정이다. “인간집단에서 공포의 근원 또는 구체적 대상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이기 보다는 사회적”²²⁾이라는 지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감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인데, 당시 군대의 행렬을 보며 느끼는 정옥의 불안이 바로 그러하다.²³⁾ 즉 정옥에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은 군대 자체가 아니라 군사 조직을 거느리고 정권을 차지한 정치 권력이다.

정옥은 남편이 사회적 죽음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다만 의식적 차원에서 남편의 행적을 복원하고 있을 뿐이다. 정옥은 자신의 처지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고독한 목격자’다. 국가나 자본의 폭력 앞에서 필연적으로 연대를 상상하지만, 오히려 고립되고 소통이 불가능한 채로 불안한 삶을 지속하는 존재들도 있게 마련이다.

‘죽은 녹빛의 행렬’은 정옥이 묘원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쟁쟁한 대낮에 환히 불을 밝히며 달려오는 차량의 행렬”과 끝없이 이어지는 군인들의 행군은 정치 권력의 현시성에 대한 상징이며, 이를 보는 정옥은

22) 잭 바바렛, 앞의 책, 263면.

23) 오정희는 군인 행렬의 상징성을 묻는 질문에 당시 군부독재 시대를 언급하며 “군대와 군대의 모든 표지는 폭압의 상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정희·이태동, 앞의 책, 101-102면.

“가슴이 건잡을 수 없이 후두둑 뛰”게 된다. 이는 공포가 갖는 현재라는 시간성과 관련된다. 흔히 공포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를 염두에 둔다고 여기지만 “특정한 부정적 유형으로 경험된 현재를 그 본질”²⁴⁾로 한다. 남편의 사회적 죽음을 목도한 정옥이 눈앞에 권력의 상징인 군인의 행렬을 보는 것은 공포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끝없이’ 이어진다. 이 공포에서의 탈피는 새로운 미래의 전망이며 그런 의미에서 정옥과 정옥의 남편은 자신의 아이를 지속적으로 떠올린다. 하지만 “그가 희구하는 평화로운 삶,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러나 아들 역시 실패하고야 말 삶. 그럼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아름다움 때문”(160면)에 눈물을 흘리는 남편의 모습에서 짐작하듯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남편의 진술은 정옥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미래의 전망 역시 현재와 유사할 것임을 직감한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재라는 공포가 정옥의 가슴을 ‘건잡을 수 없이 후두둑’ 뛰게 한다.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²⁵⁾으로 구조되었는데, 남편의 행적은 정옥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왜 정옥은 의식 속에서 그의 행적을 끊임없이 소환하는가. 그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윤택되다시피 한 삶 속에서 새벽 산행을 할 때 “어쩌면 제의(祭儀)와도 같은 것”(156면)이라고 여기거나 백중날이라는 배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소설은 일종의 제의성을 갖는다. 묘원에 도착했을 때 정옥은 절대적 평화와 외로움을 느꼈으나, 이후에는 죽은 자의 세계에 오래 머물 수 없다고 여긴다. 결국 정옥은 ‘묵직한 가슴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자리가 정옥이 갖는 중요한 위치다. 앞서 정옥을 ‘고독한 목격자’라고 명명했거니와 그는 사회적 죽음에 대해 증언이 가능한 존재다. 그러나 이는 다만 의식의 차

24) 잭 바바렛, 앞의 책, 261면.

25) 김남희, 「오정희 소설 「별사(別辭)의 시간성과 ‘작가’의 재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2. 이 논문에 따르면 「별사」는 “기존의 획일적 구조를 벗어난 새로운 형식적 실험의 요체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한 시간의 변주”라고 분석한다.

원에서 이루어진다.

정옥의 의식 속에서 남편은 낚시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영화관에 가고, 아들을 생각하거나 가게에 들러 요기를 한다. 대체로 그들은 감시자의 잦은 통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갖가지 제약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금치산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상으로의 복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남편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진술하도록 ‘흐르는’ 정옥의 의식이 목소리를 소거 당한 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시인이기보다 상식의 옹호자이기를 바랐기 때문”(167면)이라는, 일종의 ‘소명’을 표명할 수 있었다. 비록 의식의 차원이지만 남편을 일상 속에 재위치시킴으로써, 물리적 죽음을 맞이한 자를 위해 백중날 제를 행하듯이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 자를 위해 그의 일상성을 회복시키는 서사로 애도한다.

3. ‘안전사회’ 속에서 불완전하게 말하기

1980년대 초 만연했던 사회적 죽음에 대한 애도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은 흔하며, 오히려 「별사」에서의 애도는 예외적이다. 사회 성원의 대다수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었고, 지속적으로 저항성을 표출하고 있었다는 판단은 개인들의 안정적 일상에 대한 욕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1987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논의가 오류는 아니지만, 사회 성원은 사회적 죽음과 실제적 죽음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자들에 대한 배제의 논리를 재강화하는데 일조했던 공중²⁶⁾이기도 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스나이더맨

26) 가브리엘 타르드, 이상률 옮김, 『여론과 군중』, 지도리, 2012. 타르드가 말하는 공중이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지만 신문 등을 통해 그 생각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집단을 일컫는다. 신문 기자

(Sniderman)은 “대다수의 개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자리매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질서, 안정, 연속성을 지지한다”²⁷⁾고 분석한다. 즉 사회 성원은 대체로 일상에서의 안녕을 추구한다. 80년대 초 ‘안전사회’를 정치권력이 강조했을 때 안정을 통한 경제성장²⁸⁾과 사회질서 위협 세력인 범죄자, 사상범에 대한 배제·격리의 논리는 이들의 안정 추구 욕망을 적절히 이용한 예다. 물론 범죄자와 사상범의 진위 여부나 그들 죄목에 대한 진실의 면면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회’라는 외피에 동의가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소설 「야회」에서 서술자 명혜는 김원장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으로 향한다. 김원장은 소도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꽤 이름이 알려진 인사다. 그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검사, 화가, 공예 연구가, 교수 등 소위 상위중산계급²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티에서 주고받는 말과 분위기 행동을 통해 이 계급이 ‘안전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체화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앞서 2장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사회적 죽음이란 사회적 배제이자 금치산자의 상태인데, 이 죽음이 「야회」에서도 언급된다. 명혜의 남편인 길모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사회학과 송교수는 학교를 떠나게 되고 대신 그 부인이 보험 회사 외무원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이에 대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거나 ‘처신이 경술’했다고 반응한 이후 백수 보험이나 콘도미니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희생, 근절 정책 등을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는 하지만, 이 죽음의 무게는 백수 보험이나 콘도미니엄과 등가가

는 자신들의 공중이 원하는 방향의 논조를 펼치며 그들을 의식하지만 공중 역시 신문의 논조에 동조해 간다. 이는 광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군중과는 다른 존재로 1980년대 초 각 신문사의 ‘충실한 독자’들은 공중이라고 할 수 있다.

27) 마벨 베레진의 글에서 재인용한다. 마벨 베레진, 앞의 책, 92면.

28) 「전대통령 수출의 날 치사, 안정 없인 성장 불가능」, 『동아일보』, 1981. 12. 22, 1면 참조.

29) 이들을 중산층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각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과 그들이 갖는 문화자본, 사회관계자본 등을 고려해 이 용어가 좀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되어 버린다. 「별사」에서 사회적 죽음을 애도하는 역할은 정옥이 감당했지만, 「야회」에서는 그 어떤 애도의 말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교수의 사회적 죽음에 대한 원인을 송교수 탓으로 돌린다. 그가 신념에 따라 ‘처신을 경솔하게 함으로써 그들 가족의 일상적 안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정작 그의 일상성을 깨뜨린 실체(정치권력)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다만 “남의 얘기가 아네요, 우리도 밖에서 손 놓으면 당장 밥먹을 걱정부터 해야 될 처지가 아네요? 요즘 같아서야 대학 선생도 어디 하겠어요?’ 임교수 부인이 낮게 한숨 쉬며 명혜의 귓가에 소근거”³⁰⁾리며 송교수의 일은 자신들도 겪을 수 있다는 불안을 표출한다. 즉 정화되거나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자신의 계급적 위치에서 언제든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은 내면에 존재하지만 실제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된 송교수와 관련된 내용은 가십으로 공통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못)는다. 이렇듯 「야회」는 당시 사회·정치적 화제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전환되는 장면이 종종 보인다.

이러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대학 선생더러 관료가 되라는 거죠...』 귀익은 목소리에 명혜는 뒤돌아보았다. 길모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뜻밖의 큰 목소리에 잠깐 주위가 조용해졌다. 길모는 꽤 많이 마신 모양이었다. 취할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길모의 술버릇이었다. 길모의 말 상대는 놀라 돌아보는 사람들을 향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한 손을 가볍게 저어 보이며 열심히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시늉을 했다. 그러한 가벼운 손짓이 명혜에게는 이 헛내기야 하는 듯 보였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을 문제삼는 일에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핵심...』 길모

30) 오정희, 「야회」, 『세계의 문학』 제6권 제4호, 민음사, 1981. 12, 52면. 이후 3장에서 「야회」의 인용은 본문에 면수만 밝힘.

의 목소리는 트럼펫 협주곡과 사람들의 말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큰소리로 혼자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 당황한 길모가 목소리를 낮춘 때문인지도 몰랐다. (51면)

파티에서 길모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명혜의 시선을 통해 그려진다. 길모의 대화 중 사용된 말줄임표에 주목해 보자. 「야회」는 약 21회의 말줄임표가 사용되며 이는 통상 뒷말을 찾지 못하거나 말끝을 흐릴 때 표기되었다. 이러한 말줄임표의 쓰임 중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가 몇 있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위 인용에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대화 중 ‘관료가 되라는 것’ 그다음 말은 현실을 직격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말줄임표로 대체된다. 마찬가지로 정작 문제가 되는 핵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말줄임표로 표기되고 트럼펫 소리인지 길모 스스로 소리를 낮춘 것인지 자연스럽게 말은 소거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당시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첫째 길모가 이야기했던 대학의 자율성은 당시 대학의 제도 변화와 관련된다. 길모가 갖는 비판의 지점은 교수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위치가 아닌 공적 행정 업무가 주어지면서 관료와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 대학과 관련된 공적 행정 업무 중에는 불온한 ‘사상범’에 대한 감시와 검거가 주요했던 바, 이와 관련된 제도의 시행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대학의 제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국보위 백서』 중 ‘면학풍토의 조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학생 소요가 극에 달해 교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면서 면학 풍토를 재정립하고 교권을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조항을 명시한다. 특히 ‘분담지도교수체제 및 서클지도교수제의 확립’과 관련해 “*全教授가 全學生을 분담, 學習, 課外活動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지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클활동의 방향 설정, 사업 내용의 평가분석 등 종합적 지도*”³¹⁾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길모는 ‘관료가 되라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교수에게 요구

되는 역할은 감시자나 교정자다. 과외활동과 신상문체에 대한 지도는 대학 내 ‘사상법’이나 저항 세력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서클활동 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격을 지닌다. 위 사항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대학 구성원이 아닌 당시 정치권력이 갖고 있었다. 길모의 말에는 이와 같은 현실 상황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완전하게 말할 수 없음을 말줄임표는 표상한다.

둘째 ‘문제 삼는 일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핵심은 앞서 밝혔듯이 현실비판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직설되지 못하고 말줄임표로 표기된다. 이는 검열 삭제의 공백과 같은 역할을 하며 비판적 논의의 불가능성과 불완전성을 은유한다. 이와 같은 소설의 장치를 신문은 공백으로 대신한다. 1980년 신문에 대한 검열 조치에 항의하면서 “〈경향신문〉 기자들은 검열에서 삭제된 부분을 공백으로 두고 신문을 제작해냄으로써 1980년 계엄 이후 검열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를 처음으로 보”³²⁾이다. 박진우는 대학 신문이 검열을 피해 5·18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81년 5월 전남대 신문에 실린 사진에 주목한다. “사진 옆에 덧붙이는 글에는 5월의 주요 일정을 알리는 “5월의 메모”가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 성년의날, 5월 11일 석가탄신일 그리고 그다음 일정 한 줄이 빈칸으로 남겨 있다는 것이다.”³³⁾ 남겨진 공백은 5·18의 자리다. 당시 대학신문은 “그날의 아픔을,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겨우 ‘에둘리’ 말”³⁴⁾할 뿐이다. 검열 삭제의 공백이나 5·18에 대한 공백은 말할 수 없는 시대에 대한 증언이다. 이러한 ‘공백의 말하기’는 서사 중심인 소설에서 말줄임표로 표기되어 의미를 확장하고 환기시킨다. 80년대 초 전달 불가의 내용은 역설적으로 공백을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앞의 책, 65면.

32) 송건호 외, 『한국언론바로보기』, 다섯수레, 2000, 495면.

33) 박진우, 「대학신문에 나타난 ‘5·18’의 보도 형태 연구: 학원자율화 조치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2권 1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22. 3, 29면.

34) 같은 글, 18면.

통한 ‘말’하기의 시도가 이어졌고, 「야회」 역시 이와 같은 ‘공백의 말하기’라는 맥락 속에 있다.

위의 인용에서 길모의 이야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말상대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이 손짓을 한다. 그 모습이 헛내기야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서술한다. 상위중산계급이 때로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파티에 모인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정치권력이 원했던 대로 ‘안전사회’에 안착해 안정을 구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파티 참석자들은 은성한 파티에서 “점점 작아지고 추악해진 계의 잔해”(59면)를 탁자 위에 쌓아둔 채 ‘축배의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압과 보험, 콘도미니엄에 대해 이야기 하며 생활 편의의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서로 친밀하게 웃거나 없는 자들을 비난하는 공모 속에서 우의를 다진다. 성원들은 언젠대 모난 돌이 될 수 있고 그에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감정으로서 불안을 안고 살지만, 이 불안은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유지하는 처세를 한층 능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성이나 사회의 본질적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는 처신이 미숙한 ‘헛내기’에 불과하다.

서술자 명혜의 시선으로 묘사된 이 파티는 양가적으로 인식된다. 이는 장소에 대한 진술로 상징되는 바, 김원장의 집은 “크고 견고해 보였으나 집을 지은 이의 뜻이나 애정 따위는 아무 곳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44면) 곳이다. 이에 자신이 다녔던 중고등학교의 건물을 상기하게 되고 그 건물에서 느꼈던 거대한 파충류의 이미지가 겹치며 추악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추악함은 계의 잔해를 통해 재진술되는데, 이를 통해 명혜가 이 모임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원장의 집 내부는 백열등이 “은성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이자 유쾌한 웃음소리가 나는 화려한 곳이다. 또한 김원장의 집을 나왔을 때 “방금 떠나온 곳이면서도 이미 자신에게는 맡겨 놓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즐거움과 환락에 가득 찬 그곳으로 되돌아가고 싶”(60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양가적 인식과 갈등

이 명혜가 갖는 특별성이다.³⁵⁾

명혜의 양가적 인식과 갈등의 내면은 외로움과 쓸쓸함, 두려움, 공포로 표출된다. 그는 소설가로 오후 다섯시와 여섯시 사이에 날아가는 흰 새와 줄 위에서 외로움으로 미쳐가는 이야기를 통해 생의 은유와 의미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의미없는 기호로 바래지고”(43면) 명혜는 스스로에게 이런 글쓰기가 부질없는 것인가하고 묻는다. 그는 일상적 삶을 영위해 가는 틈틈이 주로 가사노동의 사이에 관찰한 내용을 메모하고 소설을 구상하는 가운데 문득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오는 감정이다. 그러나 서서히 잊혀져 가는 소설가인 명혜는 자신의 글로 시대와 소통하지 못함에 대해 외로움과 쓸쓸함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을 갖는다. ‘생의 은유와 의미’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은 다른 논의에 대한 소통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킨다. 다만 환락과 즐거움을 즐기는 파티 참석자들이 명혜의 글쓰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남편 길모 역시 마찬가지다. 즉 명혜가 갖는 외로움과 쓸쓸함은 욕망의 실현 과정에서 오는 좌절이라는 개인의 내면과 자신의 글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회감정이 상호 교차하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명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 두려움은 방금 빠져나온 김원장의 집이 “빈틈없는 비늘에 감싸인 거대한 파충류의 동물처럼 우뚝 서”(61면) 있는 모습을 본 때문이지만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를 상대로 술주정을 하는 자신이다. 낯선 외부 세계와의 부딪침으로 인한 긴장감이 취기라는 신체 증상으로 발현되며, 이러한 취기는 추악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성함이 주는 안정감에 함몰되도록 한다. 그는 거대한 파충류로 상징되는 현실 세계에

35) 서은혜는 명혜가 이 파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남편 길모와 함께 이 파티에 어울리지 않으며 소외를 경험하고 있지만 실존과 진정성의 문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고 분석한다. 서은혜, 앞의 글, 12-18면 참조. 물론 명혜는 파티에 어울리지 않은 면모를 갖고 있지만, 또한 은성한 느낌이 주는 안락함을 지속하고 싶은 욕망 역시 존재한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추악성 속에 포함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에 또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취기로 인해 불분명하게 발화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인 윤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심층은 해독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한다. 전달 받은 자가 해독 불가능한 상태니 이 말은 불완전하다. 당시 ‘안전사회’에서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만 불완전한 형태로 등장한다.

4. 소문, 은폐된 이야기의 ‘대리보충’

오정희의 소설 「저 언덕」(1989)에서 어머니 주검에 대한 감각이 기억나지 않는데 대해 “텅 빈 공백 상태가 충격의 완화장치”이며 “방어본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³⁶⁾고 진술한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한 ‘공백의 말하기’는 시대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저항 장치이지만 또한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백의 말이란 추측의 읽기와 수용이므로 성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욕망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때 소문은 그 자리를 채운다. 권명아는 파시즘 상황에서 유언비어는 “위기감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힌다고 지적하며, “파시즘적인 세계상이 근거를 알 수 없는 정보들로 만들어진 음모론적이고 불가지론적인 세계라면 유언비어는 바로 이 세계가 만들어낸 역상”³⁷⁾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시대나 이런저런 소문은 있게 마련이지만, 소문의 내용은 그 시대가 무엇을 욕망하고 추구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그 현실 세계가 파시즘의 구조를 갖는다면 소문의 내용이 현실 정치를 직접적으로 표상하지 않더라도 정치·사회의 ‘역상’으

36) 오정희, 「저 언덕」, 『옛우물』, 청아출판사, 1994, 56면.

37)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285면.

로서 해석이 요구된다.

1981년 10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밤비」와 「야회」는 소문이 소설 속에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연이어 발표된 소설의 서사 속에 소문이 포함된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권명아의 논의를 빌린다면 유언비어는 “말의 권리 혹은 말의 소통을 통한 존재의 권리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³⁸⁾ 욕망을 대리충족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3장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야회」는 대화의 단절과 전환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원인을 당시 말할 수 없는 시대라는 정치적 맥락의 차원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자율적 상호 소통의 우회성으로 소문은 등장한다. 명혜는 아이들 오줌을 누이려 뒤결으로 가게 되는데, 이층 왼쪽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다. 파티 참석자들 사이에서 김원장의 큰아들이 외국에서 돌아왔다거나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는 내용과 함께 병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명혜는 창문에 굶은 쇠창살이 쳐지고 신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명혜가 뒤결으로 갔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여기고 비명을 지른다. 이 소문 나누기에 참여한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하지만 마치 자신들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긴다. 이는 김원장의 아들이 은폐된 존재, 가려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소문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그렇듯 입이 없다. 김원장 아들에 대한 소문은 길모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보다, 명혜가 높은 풍자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보다 월등히 서로의 상호 소통을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이 청년의 정체는 직접적인 정치성을 갖느냐 아니냐가 아닌 은폐성에 기반을 둔 소문이 돌연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사태’라고 명명하는 신군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고립된 상태로 인해 광주의 진실

38) 같은 책, 285-286면.

은 더욱 은폐되고 다만 소문으로 떠돌게 되는데, 정치권력이 이를 더 가속화 시킨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담화에서 “상당수의 타지역 불순인물 및 고정 간첩들이 …(중략)… 터무니없는 악성유언비어”³⁹⁾를 유포했다고 발표한다. 이러한 신군부의 일방적 발표는 근거를 말하는 대신 위기 상태를 강조해 불안이라는 사회감정을 배태시킨다. 불순인물, 고정간첩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하지만, 앞서 권명아의 지적처럼 ‘근거를 알 수 없는 정보들’로 지면을 채운다.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이들은 정치권력이었던 셈이다.

즉 「야회」에서 김원장의 아들과 관련된 소문은 상호소통으로 인한 친밀성에 기여하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은폐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사회적 맥락과 연관된다. 사회 성원의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은폐된 진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욕망의 역상은 「야회」에서와 같이 은폐된 자에 대한 소문으로 표출될 수 있다.

광주와 관련된 ‘유언비어’에는 수많은 죽음이 가로놓여진다. 예컨대 정의구현사제단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연행되는데, 녹음 테이프 「찢어진 기록 어느 목격자의 증언」을 유출시켰기 때문이다. 그 내용 중에는 “2명의 공수병에 개처럼 끌려온 여인은 만삭이 가까운 임신부였다”⁴⁰⁾는 등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죽음과 관련해 소문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 소설 「밤비」⁴¹⁾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39) 「이 계엄사령관 담화발표 “광주사태 고정간첩 침투 선동 악화면 과국 초래”, 『매일경제』, 1980. 5. 22, 1면.

40) 「광주사태 유언비어 유포 혐의’, 『동아일보』, 1980. 7. 12, 1면. 이 기사에 등장하는 증언들을 ‘상상을 초월한 내용들’이라고 치부함으로써 그 이야기들이 갖는 힘을 무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41) 이 소설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 민자는 과거의 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피학증으로 나타나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분석(김영순, 「오정희 소설의 인물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과, 민자의 말하기는 트로마에 대한 치유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박미란, 「오정희의 소설에 나타난 트로마의 시학」,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는 해석이 제출된 바 있다.

실상 「밤비」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건대, 정치·사회적 ‘가장자리’를 스쳐가는 작품으로 협소하지만 외면하기는 어려운 지점을 소문이라는 키워드로 해명해 보고자 한다.

민자는 터미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이곳은 유리문을 통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다. 김화영에 따르면 오정희 소설은 “인물과 세계 사이에는 흔히 창문이 가로놓여” 있으며, “그 너머로 던지는 시선의 끝으로 인물과 세계를 맺어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세계로부터 고립”⁴²⁾ 시킨다고 분석한다. 민자가 약국의 창을 통해 바라본 익명의 존재들은 풍경과도 같지만, 밖에서 바라본 약국 속 여자(민자) 역시 풍경이다. 서로가 풍경 속 존재들이니 소통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약국에 들어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방금 자신이 한 말을 잊”⁴³⁾거나 “그는 민자의 말을 거의 듣고 있지 않”(174면, 177면)는다. 이처럼 「밤비」는 소통 불가능한 세계 속에 놓인다.

민자가 소통 불가능의 세계에 놓여진 근원은 소문이다. 민자는 7년 전 한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소문 때문에 작은 읍을 떠나게 된다. 구체적인 소문의 내용은 약을 잘못 제조해 주었기 때문에 소녀가 사망했으며, “마약을 사용하거나 비소를 넣”고 “손에는 독성이 있어 손에 닿은 건 뭐든지 죽어버린다”(175면)는 것이다. 소녀에게 약을 제조했다는 사실로 인해 민자는 그 죽음에 연루된다. 사망한 소녀가 특이 체질이었고 임신을 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손에 닿는 것은 뭐든 죽어버린다’ 등으로 확장되어 어떤 경우에라도 소녀의 죽음과 민자는 연계된다. 소녀의 정확한 사인(死因)을 작은 읍의 사람들과 민자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소녀가 특이 체질이기는 했지만 병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갑작스럽다. 이처럼 원인이 불분명한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서사의 요청과

42) 김화영, 『소설의 꽃과 뿌리』, 문학동네, 1998, 18면.

43) 오정희, 「밤비」, 『문학사상』 통권 108호, 1981. 10, 164면. 앞으로 4장에서 「밤비」의 인용은 본문에 면수만 밝힘.

그 응답은 소문으로 발현된다. 작은 읍의 사람들은 소녀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 민자라는 ‘개연성’을 제시해 그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다.

1980년대 무수한 의문의 죽음들이 있었다. 특히 광주에서의 죽음들이 갖는 각자의 서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한 가지는 소문이라는 ‘이야기성’이다. 물론 소문은 과시증적 상황의 억눌림을 뒤집는 시민들의 욕망이지만 소설 속 작은 읍의 사람들이 허구성으로 민자라는 실재의 존재를 지웠듯이 그들의 ‘친근한’ 이웃에게 말의 폭력이 향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민자는 소문으로 인해 그 읍을 떠나 현재 터미널 앞 약국에 정착해 산다. 그는 약국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 민자의 사회적 관계맺음은 “유리병 속에서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연두에다가 숨만 쉴 정도의 생장”(173면)만을 하는 테라리움과 같이 약국에 찾아온 손님들과의 간헐적 대화 뿐이다. 그런 민자가 7년 전 자신과 관련된 소문을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약국으로 전화를 빌려 쓰기 위해 온 흰색 셔츠의 남자 때문이었다. 그런데 흰색 상의의 남자는 “어제 저녁에 귀대를 했어야 했”(176면)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영 상태다. 그가 귀대하지 못한 이유는 금이를 찾지 못해서다. “자기 이복 오라비와 어쨌다는 추잡한 소문”(174면) 이후 “다방에 일자리를 얻어 집을 나”(175면)가게 되었고, 이와 같은 소문은 금이가 그를 외면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소문이란 사회 성원의 욕망을 반영하며, 이는 민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익숙한 대상에 폭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특히 무산자의 어린 여성에게 더 가혹한 측면이 있다. 금이는 다방에 일자리를 얻는 무산자 계급의 어린 여성이 쉽사리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추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자가 단호하게 “금이는 죽었어요”(175면)라고 말한 이유는 물론 금이가 7년 전 작은 읍에서 사망한 소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지만, 민자가 그러했듯이 소문에의 연루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상태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민자의 약국에 감기약을 사러 온 군인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건 바로 자살 행위지요. 그럴 뻔히 알면서도 사고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엔 부쩍 더 그래요”(164면)라고 말한다. 1981년 발표된 소설에서 군인이 말하는 ‘사고 치는 친구들이 요즘에 부쩍 더 많아졌다’는 발언은 자연스럽게 당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도록 한다. 더군다나 흰색 상의의 남자는 이 발언을 실제로 재현하고 있는 셈인데, 그가 자신에 대해 줄곧 이야기하는 내용은 금이와의 치정이다. 즉 요즘에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군인들이 부쩍 많아진 원인은 소설 속에서 발화되지 않는다. 이처럼 발화되지 않는 지점, 은폐된 지점을 소문은 대리보충한다. 사회 성원들이 알아야 하는 긴요한 사회·정치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상관성을 찾기 어려운 섹슈얼리티 등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소설 「밤비」는 확인시킨다.

5. 결론

지금까지 오정희의 소설 「별사」, 「야회」, 「밤비」를 대상으로 사회감정이 말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은 개인 내면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현실세계와의 부침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감정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발생했다. 사회감정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이 감정들은 말을 통해 하나의 증상처럼 표출된다. 이들은 대체로 발화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 소통 불가능의 세계 속에 놓인다. 예컨대 「별사」에서 정옥의 남편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워진 상태이므로 발화가 불가능하며 남편의 사회적 죽음을 목격한 정옥 역시 그러한 사실을 육성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야회」의 길모는 제도의 모순에 대해 비판을 직격하지 못하고 「밤비」에서 민자는 소통불가능한 세계 그 자체에 놓이게 된다.

특히 소설 속에서 사회감정이라고 분석된 감정들 불안, 공포, 두려움 등은 1980년대 초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 속에 놓인다. 사회감정이 증상으로 드러나는 시작점은 말의 부자유스러움과 소통불가능성을 우회하면서부터다. 「별사」의 경우 존재의 사회적 소거 상태라는 상황과 그것을 육성으로 발화하지 못할 때 이를 의식의 차원으로 이행한다. 그 이행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애도가 가능해진다. 또한 「야회」에서 길모의 비판적 인식은 말하기의 부자유스러움으로 인해 멈춰지게 되는데, 이 지점이 검열의 공백과도 같은 의미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부자유스러움과 소통불가능성은 때로 소문으로 발현된다. 이 역시 우회의 한 형태다. 소문은 은폐된 어떤 지점들에 대한 ‘대리보충’의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말의 폭력이 되어 익숙한 대상을 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시간의 거리가 어떻게 소설 속에서 사회감정의 증상들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언급하지 못했다. 오정희의 소설 「파로호」⁴⁴⁾는 1989년에 발표된 소설로 앞서 논의한 소설들과 시간의 거리가 있다. 5공화국의 집권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981년과 87체제 이후는 등장인물의 사회감정으로 인한 말의 증상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파로호」는 교사인 남편이 해직되었다는 점에서 「별사」를 떠올릴 수 있지만 말하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정옥이 의식 속에서 겨우 증언할 수 있었고 애도할 수 있었다면 「파로호」의 혜순은 객관적 거리를 갖고 남편의 해직과 미국 유학 이후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비디오 상영을 두고 발생했던 첨예한 의견 대립을 자세히 묘사하며 이는 대체로 육성으로 전달된다. 이에 대한 차이는 사회감정이 사회·정치 상황에 따라 다른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보이는 단서가 되지만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1980년대 초 사회감정은 과거

44) 오정희, 「파로호」, 『문예중앙』 제12권, 중앙일보사, 1989. 3.

의 감정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다시 마수미의 논의를 상기하건대 불안과 공포 등을 초래하는 사건은 무한히 반복되고 증식된다. 이와 같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성원들의 신뢰를 얻는 방식 즉 ‘안전 사회(국가)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 권력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배제당하는 자와 배제하는 자의 얼굴과 이름이 바뀌어 등장할 뿐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오정희, 「별사」, 『문학사상』 통권 100호, 문학사상사, 1981. 2.
오정희, 「밤비」, 『문학사상』 통권 108호, 문학사상사, 1981. 10.
오정희, 「야회」, 『세계의 문학』 제6권 제4호, 민음사, 1981. 12.

2. 신문 및 잡지

- 「이 계열사령관 담화발표 “광주사태 고정간첩 침투 선동 악화면 파국 초래”」, 『매일경제』, 1980. 5. 22, 1면.
「광주사태 유연비어 유포 혐의」, 『동아일보』, 1980. 7. 12, 1면.
「안정 저해요인 신속 제거」, 『매일경제』, 1980. 7. 19, 1면.
「창조·개혁·발전의 새출발 전 대통령 취임사전문」, 『경향신문』, 1981. 3. 3, 3면.
「전대통령 수출의 날 치사, 안정 없인 성장 불가능」, 『동아일보』, 1981. 12. 22, 1면.
권영민, 「현실적 상황과 소설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 제9권 제1호, 문학과 지성사, 1978. 2, 310-319면.
김용구, 「일상의 간헐과 밀집」, 『세계의 문학』 통권 30호, 민음사, 1983. 12, 327-335면.
오정희, 「파로호」, 『문예중앙』 제12권, 중앙일보사, 1989. 3.
오생근, 「오정희론 - 허구적 삶과 비판적 인식」, 『사회비평』 4호, 나남출판사, 1990. 8, 321-338면.
최형민, 「80년 언론 학살에 대한 언론의 재조명」, 『관훈저널』 76호, 관훈클럽, 2000. 9, 292-302면.

3. 단행본

- 가브리엘 타르드, 이상률 옮김, 『여론과 군중』, 지도리, 201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백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김화영, 『소설의 꽃과 뿌리』, 문학동네, 1998, 15-55면.
마벨 베레진, 「안전 국가: 감정의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잭 바바렛 엮음, 박형신 옮김, 『감정과 사회학』, 이학사, 2009, 63-100면.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적 사실의 미래적 탄생-위협적 정치적 존재론」, 멜리사 그레

- 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외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96-125면.
- 송건호 외, 『한국언론바로보기』, 다섯수레, 2000.
- 오정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 _____, 『옛우물』, 청아출판사, 1994, 49-117면.
- 오정희·이태동, 『작가와 함께 대화로 읽는 소설 별사』, 지식더미, 2007.
- 책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옮김, 『감정의 거시사회학』, 일신사, 2007.

4. 논문

- 김남희, 「오정희 소설 「별사(別辭)」의 시간성과 ‘작가’의 재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2, 31-52면.
- 김대현, 「치안유지를 넘어서 ‘치료’와 ‘복지’의 시대-1970-8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45호, 역사문제연구소, 2021. 4, 91-131면.
- 김미현, 「오정희 소설의 우울증적 여성 언어 - 「저녁의 게임」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9호, 우리말글학회, 2010. 8, 253-274면.
- 김영순, 「오정희 소설의 인물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
- 김진석, 「오정희의 「별사」 분석」,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19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6, 104-129면.
- 박미란, 「오정희의 소설에 나타난 트로마의 시학」,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 박진우, 「대학신문에 나타난 ‘5·18’의 보도 형태 연구: 학원자율화 조치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2권 1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22. 3, 5-44면.
- 박혜경, 「오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사회 현실 인식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16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5, 69-90면.
- 서은혜, 「80년 광주 이후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남편-아내’ 인물형 범주의 의미 - 자전적 공간과 작가 정체성 모색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1. 3, 5-37면.
- 윤애경, 「오정희 소설의 환상성과 비극적 세계 인식」, 『국제언어문학』 28호, 국제언어문학회, 2013. 10, 1-24면.
- 정연희, 「오정희 소설의 표상연구 - 「비어 있는 들」과 「야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4호, 국제어문학회, 2008. 12, 383-406면.
- 정재림, 「「별사(別辭)」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연구-문체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소

설연구』 제3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3, 194-208면.

최영자, 「오정희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 히스테리적 발화양상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2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12, 33-86면.

<Abstract>

Social Emotion and Symptoms of Words

– With a focus on *A Farewell Address*, *A Night Party*,
and *The Night Rain* by Oh Jeong-hee

Seo, In-Sook

This study sets out to analyze how anxiety as a social emotion is embodied in novels by Oh Jeong-hee. In 1980,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were caused by the fear of the new army group following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on May 18 with the press making an attempt at the reversal and transfer of fear. This process witnessed the organization of a 'safety society' and stability discourse, from which anxiety and fear etc as a social emotion arose from paradoxically. In 1981, political became even acuter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institutions. Oh Jeong-hee published *A Farewell Address*, *A Night Party*, and *The Night Rain* during the period. These works reveal the symptoms of social emotions as follows: first, Jeong-ok's husband is missing in *A Farewell Address*, and his missing symbolizes his social death. Her anxiety stems from her witnessing his social death and is amplified by the absence of a community that she can join and her failure with a future prospect. Driven by the real situation that does not allow her to testify, she summons her husband's whereabouts in her consciousness. This is her way of holding a memorial service and mourning for him that has faced a social death in that it is a narrative to return a man that is almost incarcerated to everyday life. Secondly, *A Night Party* critically shows that the upper middle class contributes to the re-strengthening of

the stability discourse in those days. In the novel, Myeong-hye is situated as a rival with the ambivalence of the safety society. Some ellipses used in the novel show a similar form to empty spaces in newspapers after censorship and deletion. This "vacuum of words" implies a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one cannot help talking incompletely in a 'safety society'. Finally, Rumors in the *Night Party* and *Night Rain* is social signs of the concealed truth and death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t solves the narrative of each person's sudden death with the 'story' of a rumor, but the violence of words is directed to the neighbo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oint where anxiety as a social emotion is manifested as a symptom begins where the impossibility of ignition makes a detour.

Key words: social emotion, 'safety society', social death, vacuum of words, rumor, proxy compensation of vacuum, *Farewell Address*, *Night Party*, *Night Rain*

투 고 일 : 2023년 8월 19일

심 사 일 :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 2023년 9월 18일